



祭祀



그 고클레에서 벗어나려면

무조건 반대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성화하자

글 손봉호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모든 문화의 성격은 그 지역의 지배적 종교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형성된 문화에 기독교 복음이 전래되었을 때 거의 불가피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그 문화의 성격을 결정하는 종교에 들어있던 우상숭배 요소와의 갈등이다. 바로 그 갈등 때문에 복음전파가 어렵게 되고 심지어 순교자까지 생겨나는 것이다.

한반도 문화의 성격을 결정할 정도로 유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한민족이 한반도에 이주해 올 때 가지고 들어 온 종교가 무속이었기 때문에, 불교보다는 중국 고대 무속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유교에 훨씬 더 친화적이었을 것이고 그만큼 더 깊숙이 한반도 주민들의 의식에 파고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교에서 우상숭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사일 것이다. 제사에는 조상의 은덕을 감사하며 그 혼백을 대접한다는 요소와 조상의 도움을 얻으려는 기복적인 요소가 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다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제사에는 효도의 정신도 반영되어 있고, 같은 조상을 둔 가족들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계기도 만들어 준다. 이 둘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런 요소들 때문에 제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전적으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효도와 가족 간 유대는 문화의 일반적인 세속화 과정에서 점점 약화되고 있어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오히려 되살리고 강화해야 할 미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제사와 관련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시도해야 할 것은 이것을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성화시켜 우상숭배 요소를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를 살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독교는 가능한 한 심한 반발을 피하면서 전통적인 제사를 대체하는 의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우상숭배라는 오해를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통적인 조상 추모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식을 제정한다.

소위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하여 바울 사도의 경고(고전 8:10)를 고려하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한 그리스도인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상숭배의 풍속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바울 사도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사문제 때문에 교회 출석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상숭배라는 오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통적인 조상 추모의 정신을 최대한으로 살려 그들의 교회 진입을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추모행사는 고인의 혼이 아니라 고인을 기억하고 그의 명예를 높이는 것과 가족의 연대를 돈독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고인을 추모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오해를 자아내지 않으려면 추모행사에 조상의 혼백이 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추모의 더 큰 의미는 가족들이 고인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고인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에 있다. 또한 그런 행사를 통하여 고인과 관계되는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므로, 갈수록 파편화되고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가족들의 정신적 건강과 자녀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추모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독교

의식은 가능한 한 이용한다.

이미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각종 기독교 추모행사는 우상숭배라는 인상을 자아내지 않으므로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장례행사 때 빈소에서 고인의 영정을 올려놓게 하는 것, 문상하는 사람이 영정 앞에 꽃을 놓고 묵념하는 전통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용인하는 풍속으로 정착되었고 아무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원칙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도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추모는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후손이 살아 있는 기간에만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추모가 고인을 회상하고 그 은덕에 감사하는 것이라면 아무도 만나보지 못했고 기억할 수 없는 선조를 추모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의미가 없다.

둘째, 추모행사는 기일에 국한하고, 설과 추석에는 가족 모임으로 추모를 대신한다. 기일 이외에 설과 추석에도 추모행사를 하는 것은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조상의 은덕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귀찮고 원망스러워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조상의 명예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셋째, 현 시점의 한국 문화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상황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진, 녹음된 음성, 꽃, 묵념, 약력, 회고, 식사 등은 추모행사에서 허용될 수 있지만 지방, 제상, 제물, 향, 곡, 절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추도예배와 추모행사

한국 개신교에는 다른 나라 개신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추도예배라는 의식이 생겨났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것이 제사를 대체한 의식이란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죽은 조상에게 절하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이므로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조상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므로 추도예배

를 도입했을 것이다.

물론 제사의 대체물로서의 추도예배에는 조상이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예배란 원칙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맞추어야지 조상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사나 추도예배나 모두 실제로는 종교적 의미보다는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추도예배가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 하거나 그리스도인에게 금지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 형식을 이용하되 그 내용을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바꿈으로 훌륭한 기독교 의식으로 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심하면 조상이 사망한 날에 온 가족과 친족이 모여서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조상을 주셔서 한 가족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비록 핵가족화 하고 친족의 의미가 약해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가족과 친족이 우리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안전에 가진 의미는 적지 않다.

또한 추도예배를 계기로 같은 조상을 가진 친족들이 모일 수 있고 유대를 돈독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유대가 단순히 자신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뤄짐을 인정하고 그 유대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및 사회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추도예배와 유사한 동방교회의 기념예배에서 배울 요소들도 있다. 즉 조상들의 죽음을 생각함으로 땅위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memento mori) 좀 더 뜻 있게 살기를 다짐할 뿐 아니라 우리가 범한 죄를 회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 외에 우리의 연약함과 사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요소도 포함할 수 있다.

끝으로, 부모 공경은 제5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전

체가 가르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도 부모와 조상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 조상과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고차원의 효도라 할 수 있고, 그것을 주위 사회가 알게 함으로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보다 쉽게 수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세부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추도예배를 드리거나, 다음과 같은 행사로 기존의 추도 행사를 대체하면 추도의 의미를 더욱 부각하거나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간단한 기도와 찬송 후 가족이 둘러 앉아 고인을 회고하는 것이다. 고인의 훌륭한 점이나 자신과 관계되어 기억하고 싶은 사건들을 회고함으로 고인의 명예를 드러내고 유족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며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제시함으로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때 고인의 약점은 드러낼 필요가 없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공정해야 하지만 추모행사에서는 고인의 장점만 부각시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후손들이 가문에 대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고 어린 후손들은 인성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단순히 제사상 앞에서 절하고 음복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뜻이 있고 후손들에게도 고인을 진정으로 받들었다는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나) 참석자들이 정성껏 헌금하여 가족이나 친족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을 고인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가족이나 친족이 없으면 가까이 사는 장애인이나 고아, 소년소녀 가장, 복지기관에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으로 끝내는 제사보다 고인에 대한 후손이나 유가족의 정성을 훨씬 더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며,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고 주위 사람들 가운데서 고인의 명예를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